

# 한국서 '참여불교' 꽃피운다

2003년 참여불교세계대회(www.inebseoul.org, 공동대표 수경 스님·법륜 스님·박광서)가 20일부터 25일까지 용인 삼성출판센터와 청도 운문사, 경주 불국사 등지에서 열린다. 동북아시아 중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전세계 16개국 40여명의 참여불교지도자들이 참석한다. 기조강연과 8개 분과토의, 전체 심층토론, 공동실천 방안 모색 등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 눈여겨 볼 것은 23일 인천에서 열리는

## 2003년 세계대회 20~25일 용인서 16개국 40여 저명불교지도자들 참가

'세계 평화와 화해를 위한 평화 명상', '남방불교 명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여성 차별(비구니) 때문에 24일 비구니 기림인 청도 운문사를 견학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주제발제서부터 연관된 단체들 간의 의견 조율을 거친다는 것도 이번 대회의 특징 중 하나. 해외 주요 참석자들의 활동경력을 소개한다.



▷1999년 '비폭력 문화'를 주제로 스리랑카 모라쿠외에서 열린 INEB대회 참가자들.

### ▶솔락 시바락사(Sulak Sivaraksa)

21일 '불교의 올바른 사상'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사회참여불교 운동의 태두이자 사회비평가인 솔락 시바락사는 1933년 태국에서 태어나 영국에 유학해 철학, 사회학, 법학을 공부했다. 기조강연과 8개 분과토의, 전체 심층토론, 공동실천 방안 모색 등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 눈여겨 볼 것은 23일 인천에서 열리는

### ▶로카미트라(Dammachari Lokamitra)

23일 공개 심포지움에서 '붓다, 다르마 그리고 상가- 돌아보고 내다보며'를 주제로 강연한다. 영국 출신의 로카미트라 법사는 1977년부터 인도에서 활동을 시작해 1979년 법제계불교교단협의회(TBMSG)를 설립, 전

### 해외 주요 참석자들

법활동과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 불가촉 천민 대상 구호활동과 서구법우회에서 중심활동을 하고 있다.

### ▶하리사 리아나(Harison Linage)

21일 '출·재가의 올바른 관계와 역할' 워크숍에서 사회를 본다. 사르보다야 부대표인 하리사 리아나는 사르보다야의 정책과 활동 전반을 책임지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르보다야의 핵심 프로그램인 SEED(Social Empowerment Division)을 설립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 자립성을 갖게 할 수 있는 SEEDS(Sarvodaya Economic Enterprises Development Services)를 시도할 수 있게 했다.

### ▶란자니 드 실바(Ranjani De Silva)

21일 '근본불교에서의 여성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현대적 재조명' 워크숍에서 발제를 한다. 사키야다 전 대표인 란자니 드 실바는 테라바다 불교에서의 여성 출가 제도도 회복, 전 세계적으로 불교여성지도자 양성 활동을 하고 있다. 스리랑카에 비구니제도를 확립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한 그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지도력을 강화, 마을개발운동에 힘쓰고 있다.

### ▶베니사 월키(Venetia Walkey)

22일 환경(소비주의의 극복을 위한 생명운동) 워크숍에서 사회를 본다. 평화교육과 생태/영성 대안교육기관인 담파 파크 갤러리(Dhamma Park Gallery) 대표인 베니사 월키는 영국인 조카가로 불교와 요가를 공부하면서 태국에 거주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담파공인 갤러리에 전시돼 있는 '12연기'와 '사상제' (현대 조형물) 등.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 '98년 멸빈자 사면' 논란 2라운드

법장 스님의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이후 핵심쟁점으로 부각되어온 98년 멸빈 징계사 처리문제를 놓고 논란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처리 방식에 있어 변화 조짐도 보인다. 조계종 법규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 그동안 멸빈자 사면의지를 강하게 보였던 총무원 집행부가 변화된 입장을 드러냈다. 또 불교계의 대표적 재가단체인 '재가연대'는 멸빈자 사면의 명확한 원칙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전제)는 6월 26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98년 멸빈 징계를 받고 특별법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했던 정우스님이 청구한 특별법 관련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정우스님이 청구한 두 가지 사항은 '특별법이 종전 128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과 '특별법에 계류 중이므로 징계효력이 유예 상태'임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법규위원회는 이 두 가지를 안건으로 채택하고 논의를 진행했으나, 정우스님(정우스님)의 청구권자 자격 유무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한 달 후 재심의를 벌이기로 했다.

양았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법규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한편, 조계종 기획실장 현고스님은 이

이 말은 어떻게 해서든 멸빈 징계사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또 98년 멸빈 징계사 문제 처리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종단이 분열된다면 굳이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의 대표적 재가단체인 '재가연대'는 6월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적 설득과 공감대 형성 노력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양측 당사자들의 충분한 합의와 진실한 관용이라는 세 가지 원칙이 실현되는 방향에서 사면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재가연대, 명확한 사면원칙 제시 요구 조계종 총무원 "무리 않겠다" 입장 변화

문제는 청구권자 자격 시비 논란 속에서도 법규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뤘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멸빈자는 청구권이 없다. 따라서 정우 스님의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멸빈 징계가 확정되지

날 종단 출신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전과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현고스님은 "종회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할 것이며, 70% 이상의 가능성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종회에 상정할 것이다. 무턱대

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며, 일부 98년 멸빈 징계자를 살리는 것보다 종단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 불교계 유능인력 확보 3기준

- 직무정립
- 비전제시
- 처우개선

"사찰에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려면 직무 정립, 비전 제시, 처우 개선 세 가지 기본 틀을 마련하라." 사찰이나 단체에서 일 할 사람 구하는 게 더 어려워진 요즘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됐다. 정우기 불교아카데미 교육연구실장은 <참여불교> 5·6월호에 기고한 '불교인력난, 극복 방법이 없을까'에서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한 △현재 종사자가 어떤 일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립할 것 △직원채용 시 분명하게 비전을 수립해 홍보할 것 등을 사

찰이 실현해야 할 항목으로 제안했다. 기고에서 정 실장은 "신규 채용을 할 때 맡아야 할 직무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그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적인자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작은 사찰일수록 분명하게 비전을 수립해 직용채용 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처우 개선에 부분에서는 "이 절이 내가 장기적으로 젊음을 바쳐 일할 만한 곳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적어도 4대 보험만큼은 기본 장치"라고 주장했다. 남동우 기자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및 시식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백중천도시식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산 동선회법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밤 10시 ~ 새벽 3시 대비주 철야기도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영

### 곤지암 우리절

##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10시-오후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예 불자들의 모든 바램을 한 번 짓게 걸어 보십시오  
주 [대비주=신묘장구대다라니]

### ☞ 수계식 1

우리절에서는 천삼십일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조상영가님들과 만년영구위패 영가님들, 그리고 유주무주교 훈영가님들을 위해 오는 7월 20일 [우리절 우담바라 개화 제 6주년]을 맞아 특별히 [영가수계식]을 병행합니다.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신 분, 입시자녀를 두신 분들은 조상님께 가장 좋은 효도가 될 수 있는 이번 [영가수계식]에 동참하십시오.

### ☞ 수계식 2

오는 11월 5일, 2004학년도 대입수능이 치러집니다. 특히 올해는 여느 해와 달리 당국의 교육정책혼선으로 인하여 입시자녀들은 물론 많은 학부모님들조차 어찌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절에서는 수능을 100여일 앞둔 7월 27일 오전10시 입시자녀들을 비롯하여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수계식을 병행합니다. 부처님의 크신 가피력에 힘입어 아빠·엄마·자녀들이 모두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도록 [수계공덕]에 흠뻑 젖으시기 바랍니다.

###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